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거시경제 동향

2013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현장여론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7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

동향 분석 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

※ 본 자료는 2013년 9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ICT 융복합 확산 및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실태

1)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발굴 사업('10~'13년 20개, 공모방식) 추진현황

※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시설원예]** 모델발굴 사업이 가장 많이 시도되었고, 기술 개발도 진전되어 일부품목의 경우 확산이 가능 한 수준

○ **[축산]** 시장이 큰 양돈분야는 사료 자동급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단계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델개발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시점

2) ICT 융복합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ICT 융복합 사업 모델검증 시범사업의 한계로 확산 부진

○ 농식품 ICT 융복합 기술 및 모델에 관한 표준화 미흡, 관련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민간 주도의 농식품 ICT 융복합 활성화 한계

○ 농업인의 인식부족, 현장지원 가능한 전문인력 부족 등 인프라 미흡

□ 확산대책

1) ICT 융복합 성공모델 보급 확산

○ **[계획]**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용이한 **시설원예·과수, 축산을 중심으로 성공모델 확산, 농산물 전자직거래 및 농축산물 이력정보 제공 등 유통 및 소비분야 등까지 다양한 모델 개발보급**

○ **[시설원예·과수]** FTA 등에 대비하여 생산성·품질 향상 필요성 등이 큰 수출전락 품목에 주력

- (시설원예) 농가에 첨단 센싱, 모니터링, 제어 등의 IT융합 장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작물의 생육환경을 모바일·PC를 통하여 모니터링·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하우스’ 보급
- (과수) 과수작물에 첨단 센싱 병해충 예찰, 제어 등의 ICT 융복합 장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작물 생산
- **[축산]** 동물복지제도 시행 등으로 ICT 활용 가능성이 높고, 관련 모델 검증이 진행된 양돈을 중심으로 추진한 후, 낙농 등으로 확대(’14~’17 까지 500농가)
 - 온습도센서, 화재센서, 인터넷CCTV 등을 이용한 환경제어·위험관리와 자동급이기 등을 활용한 사양관리
 - ※ 낙농통합관리시스템 R&D 추진(’13~’15), ’15년 모델검증 사업 후 확산
- **[유통 등]** 농산물 판매지원, 농촌관광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성·경제성 등 검증 후 확산
 - ※ 로컬푸드 직매장 등 경영체 100개, 6차산업화 추진 마을 공동체 등 50개 마을
- **[모델발굴]** 현장 수요가 높은 원천-응용 신기술은 R&D 과제추진, 기술의 적용 가능성·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모델 개발 확대

2) ICT 산업 생태계 조성

- **[계획]** 다양한 ICT 기술이 농식품 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
- 정책연계, ICT 전문인력 양성, 농기업과 IT기업 간의 긴밀한 기술협력 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 제어기·센서, 경영관리프로그램 등 **HWSW를 표준화 및 통합정보 활용 체계 구축** 등 추진
- 민간업체의 현장 적용모델 확산을 위해 자본이 부족한 ICT 기업에 대해 **농식품 분야 펀드 지원 검토**

3) 기초 인프라 확충

- **[계획]**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등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

-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습형 ICT 교육농장 구축 및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ICT 융복합 기술 접목을 통해 첨단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실효성 증진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ICT 융복합 평가·검증·환류 강화 및 현장 지원** 등 추진

□ 추진 및 평가

- **[투자예산]** 2017년까지 총 2,249억 원
- **[예산재원]** 기존의 R&D 및 정보화 예산 활용, 농업·농촌 현장 확산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현대화사업(시설원예, 축산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추진체계]** R&D단계부터 모델 개발 및 확산 단계까지 체계적인 순환 구조
 -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모델의 지속적인 발굴 및 현장 적용 고려

〈농식품 ICT 융복합 추진체계〉



- **[평가]**
 - ICT를 활용한 시설농업을 중심으로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효과 기대
 - 농식품 ICT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의 계기 마련

주요 농정 이슈_2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 본 자료는 2013년 9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업인의 농작업 중 안전사고와 질병 보장 강화된다」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개념]**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농업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등의 안전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 **[도입배경]** 농업노동의 특성상 안전재해의 위험이 높으나 관련된 안정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도입 추진

※ 농업분야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고발생률은 1.46%, 전체 평균 0.7%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발생('09년)

- **(농업노동 안전재해 실태)** 현재 농업·농촌의 환경은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등에 따른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의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 영농기계나 농약 등의 의존을 증가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 **(재해보상 문제점)** 안전재해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하여 농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인이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그 미만인 경우와 자영농업인인 경우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보장범위나 수준이 일반 산재보험보다 낮음.

※ 민간보험사인 (주)NH농협생명보험이 판매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 보험료 50% 국고로 지원

□ 주요내용

○ **[운영방식]** 현재 운영 중인 **민간보험사 판매 방식 유지**

- 민간보험사가 농식품부와 약정을 체결하고 보험상품을 해당 가입자에게 판매(현행 농업재해보험사업 방식과 유사)

○ **[전담기관]** 보험상품 개발, 통계 수집·분석 및 안전재해 예방사업 등의 기능을 담당할 전담기관 설립 또는 지정

- 보험사업 운영계획 수립, 사업약정 체결, 관리·감독, 보험료율 결정, 상품 개발·보급, 통계 수집·분석 등 담당

○ **[보험사업자]** 민간보험사

- 보험업법상 보험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와 약정 체결하고 보험사업 수행

○ **[가입대상]** 농업인,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동거 가족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의 농작업 근로자

- '12년 농림업 경제활동인구 1,482천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42,404명, '09)를 제외한 인원(약 144만 명 추정)

○ **[가입방식]** 임의가입

- 의무가입제 도입 시 보험 기피 고령자의 반발 및 위헌소지 등 우려

○ **[보장범위]** 농작업 중 사고 및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

- 농작업과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정하되, 농작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보장혜택 확대

○ **[보장수준]** 농업인들의 보험료 및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수준으로 점진적 상향조정 추진

※ 보험료: 농업인안전보험 연 68,500원, 산재보험(농업인) 연 366,650원

- (보험급여 범위) 현행 농업인안전보험 상의 급여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간병·직업재활급여 추가 지급

○ **[국고지원]**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실제 지원수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현재 보험료, 운영비, 수수료를 포함하는 비용의 50% 지원

○ **[안전재해 예방]**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시책 추진 근거 마련

○ **[시행시기]**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

- 2013년 내 국회 제출 및 2014년 상반기 제정, 2015년 예산사업부터 적용

거시경제 동향

2013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 본 자료는 2013년 9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소비자물가지수] 107.7(2010년=100), 전월대비 0.3%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3% ↑

<연도별 8월 및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2010=100, %)>

구 분	연도별 8월 동향					최근의 월별 동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 수	97.7	100.3	105.0	106.3	107.7	107.6	107.4	107.3	107.2	107.4	107.4	107.7	
전 월 대 비	0.4	0.5	0.7	0.4	0.3	0.3	-0.2	-0.1	0.0	-0.1	0.2	0.3	
전년동월대비	2.2	2.7	4.7	1.2	1.3	1.4	1.3	1.2	1.0	1.0	1.4	1.3	
전년동기대비	3.0	2.8	4.1	2.3	1.3	1.5	1.4	1.3	1.3	1.3	1.3	1.3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106.5, 전월과 동일

※ 전년 동월대비 1.3% ↑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105.5, 전월과 동일

※ 전년 동월대비 1.2% ↑

○ [생활물가지수] 106.8, 전월대비 0.6% 상승

※ 전년 동월대비 0.8% ↑

- (식품) 110.2, 전월대비 1.5% 상승(전년 동월대비 1.5% ↑)

- (식품이외) 105.4, 전월대비 0.3% 상승(전년 동월대비 0.4% ↑)

○ [신선식품지수] 114.0, 전월대비 6.9% 상승

※ 전년 동월대비 2.6% ↑

- (신선어개) 109.9, 전월대비 1.3% 하락(전년 동월대비 0.2% ↑)

- (신선채소) 107.0, 전월대비 18.4% 상승(전년 동월대비 12.9% ↑)

- (신선과실) 124.6, 전월대비 4.1% 상승(전년 동월대비 2.4% ↓)

- (기타신선식품) 98.2, 전월대비 3.5% 하락(전년 동월대비 10.5% ↓)

□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114.4, 전월대비 3.6% 상승

※ 전년 동월대비 2.1% ↑

- (농산물) 119.5, 전월대비 6.6% 상승(전년 동월대비 2.3% ↑)

- (축산물) 105.4, 전월대비 0.2% 상승(전년 동월대비 2% ↑)

- (수산물) 112.8, 전월대비 0.9% 하락(전년 동월대비 1.9% ↑)

<품목성질별 동향(2010=100, %)>

구 분	품목수	가중치	2012.8월				2013.8월			
			지수	전월 대비	전년 동월대비	전년 동기대비 (1-8월)	지수	전월 대비	전년 동월대비	전년 동기대비 (1-8월)
총 지 수	327	443.6	108.8	0.8	1.6	3.5	110.2	0.5	1.3	1.1
농축수산물	71	77.6	112.0	1.8	-1.7	2.9	114.4	3.6	2.1	0.4
농 산 물	51	43.5	116.8	4.4	0.6	8.5	119.5	6.6	2.3	2.1
축 산 물	6	22.1	103.3	-2.2	-8.2	-7.8	105.4	0.2	2.0	-3.9
수 산 물	14	12.0	110.7	-0.6	2.4	3.0	112.8	-0.9	1.9	1.8

<2013년 8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상승 품목	배추(69.6), 수박(38.0), 시금치(47.2), 토마토(40.7), 양상추(59.8), 배추(52.2), 부추(35.9)	배추(42.8), 쌀(7.7), 달걀(16.6), 토마토(48.4), 호박(64.0), 풋고추(34.6)
하락 품목	오이(-8.7), 바나나(-8.3), 고등어(-5.5), 양파(-5.4), 갈치(-4.7)	고춧가루(-22.1), 파(-25.1), 마늘(-12.4), 감자(-25.2)

※ 리포트 전문은 KREI리포터 사랑방 사이트(<http://reporter.kr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3. 8. 8 ~ 9. 4
- 수집대상: KREI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접수건수: 20건
- 주요내용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현장여론>

- 농촌의 6차 산업화는 튼튼한 1차 산업이 기본돼야
- 농업에 대한 법과 규제 완화부터
- 후계육성,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국제시장 진출 등 경쟁력 키워야
- 유통 및 체험개발, 홍보 등 ‘6차 산업 전문가’ 육성

<기타 농촌현장 여론>

- 농촌관광에 부정적 인식 여전해
- 피서객, ‘쓰레기 되가져가기’ 실천해야
- 농촌관광, 소득창출의 기회로 인식해야 발전할 수 있어
- 농업인, 단순 관광 아닌 견학 등을 통해 학습의 기회로 삼아
- 농촌 경로당에 지원되는 쌀, 수요와 맞게 분배되어야
- 마을 정자에 전기시설 설치해 이용 편리하도록

□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 농촌의 6차 산업화는 튼튼한 1차 산업이 기본돼야

- 6차 산업은 1, 2, 3차 산업간 흐름을 이해하고 생산, 가공, 체험, 지역 문화, 역사, 생태, 숙박 등을 연계해 종합적인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전북 고창, 장연희>

-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여(1차) 단순 판매하는 것은 제값을 받기 힘들. 자가 원료로 가공(2차)하면 연중 유희인력 활용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생산한 원부재료를 안정적으로 보관, 저장, 가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이 보장될 수 있음. 이를 관광 및 체험장으로 제공하면, 6차 산업을 통해 지자체의 세원 확충 및 세수 증대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임.<경기 안성, 임충빈>
-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작물을 특화해 튼튼한 1차 산업의 바탕 하에 6차 산업의 핵심인 농촌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함.<경남 통영, 이현순>
- 농협 등에 판매해 대금을 받는 수익구조(1차)를 벗어나 마을단위 농산물의 상품화(2차), 농산물의 직거래, 체험, 숙박 등(3차)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여야 함.<경기 연천, 현진수>

○ 농업에 대한 법과 규제 완화부터

- 우리나라 농지는 대개 그린벨트 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종 규제가 심함. 6차 산업의 활성화는 농업에 대한 법의 규제를 완화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함.<경기 남양주, 김용덕>
- 자가 재배한 과일로 간단한 포도즙을 만들어도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의료보험료 등 줄줄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제조가공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경기 안성, 임충빈>

○ 후계육성,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국제시장 진출 등 경쟁력 키워야

- 농업을 이어갈 후계자를 적극 육성하고, 시범마을을 선정해 중점 지원 하여 장단점을 보완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함. 모방하지 않고,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국내를 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6차 산업으로 기반을 다져야 함. <충남 부여, 최영호>
- 갈수록 노령화 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에서는 농업계 학생을 계속해서 육성해 젊은이들이 농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경남 통영, 이현순>

-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무엇인지, 마을과 단체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상품화하고, 리더발굴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함.<경기 연천, 현진수>

○ **유통 및 체험개발, 홍보 등 ‘6차 산업 전문가’ 육성**

- 체험관광과 상품을 연계하고 개발, 홍보, 고객관리를 할 수 있는 농촌관광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인력을 확충해야 함.<전북 고창, 장연희>
- 지역출신 도시이주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소비자 거점을 확보·유통하면 생산, 가공, 유통을 합친 6차 산업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임.<제주 서귀포, 김상우>

□ **기타 농촌 연장어론**

○ **농촌관광에 부정적 인식 여전해**

-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봐도 농촌은 날씨가 무덥고, 풀이 무성히 자라 벌레가 많아 불편할 때가 있음. 체험하러 방문했다가 눈살 찌푸리고 얼른 돌아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듦.<경기 안성, 이길숙>
- 해수욕장에는 텐트족들이 늘어나 소란스럽고, 관광객이 두고 간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으며, 주택가에서는 기웃거리는 외부인이 많아서인지 주민들은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지 않은 편임.<제주 제주, 임영애>

○ **피서객, ‘쓰레기 되가져가기’ 실천해야**

- 농촌으로 놀러온 피서객들이 캠핑하고 떠난 자리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농촌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물과 환경에서 재배된 곡식과 과일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와 먹게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해야 함.<경기 안성, 임충빈>

○ **농촌관광, 소득창출의 기회로 인식해야 발전할 수 있어**

- 농촌관광은 소득을 얻지 못하면 지속하기 어려운 사업임. 농촌관광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소득에 있는 점을 인식해 발전에 힘써야 함.<전남 순천, 김종근>

- 농촌체험, 문화교류 등 갖가지 명분으로 도시민을 농촌으로 불러오는데, 정작 농촌소득과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음. 그동안의 농촌관광을 되돌아보고 소득과 연계한 다른 방안이 필요함.<강원 영월, 유영조>

- 우리 지역은 해안절경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 하루 3천 명 이상의 내방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체험 및 숙박은 투자대비 큰 수익을 벌지 못하고 있음. 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관광사업으로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성공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제주 서귀포, 김상우>

-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이 관광 소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휴식을 제공해 국내는 물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도 모색되어야 함.<충남 청양, 지미화>

○ **농업인, 단순 관광 아닌 견학 등을 통해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 농업인들은 농한기를 이용해 관광을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편임. 농촌관광 문화가 목적을 잃고 관행적인 관광 위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경북 성주, 조경현>
- 농업도 이제는 기술시대, 집단화, 전문화되어야 하므로, 소모성 단순 관광이 아닌 품목별 국내 견학을 통해 학습과 소득증대의 기회를 주어 선진농업으로 거듭나도록 운영해야 함.<경북 구미, 정태근>

○ **농촌 경로당에 지원되는 쌀, 수요와 맞게 분배되어야**

- 농촌에서는 경로당의 인원을 구분 짓지 않고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연간 20kg의 쌀 7포가 지원되고 있음. 각 경로당의 수요를 파악해 형평성에 맞게 공급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봄.<전남 순천, 김종근>

○ **마을 정자에 전기시설 설치해 이용 편리하도록**

- 마을 정자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저녁시간 불편함이 많음. 지자체에서 농촌 지역 마을 정자에 전기를 설치해주길 바람.<전남 순천, 김종근>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9월 2일~6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

-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가동(9.17일까지), 수요가 많은 **사과·배 등 10개 품목 집중 관리**. 올 추석은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성수품 구매력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 공급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채소는 기상에 따른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 ▲정부와 농협,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집중 방출해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수준으로 **확대**, ▲채소·비축·계약재배 물량을 도·소매시장에 공급, ▲과일·계약재배 물량을 성수기에 집중 출하하는 한편 산림조합이 보유한 임산물을 추석 시즌에 전량 출하, ▲농협매장과 직거래장터를 통해 성수품을 10~30% 할인판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에서도 추석 전 2주간 성수품 특판행사 실시

자료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3.9.5.)

□ 견고추·마늘 MMA 수입, 연말로 늦춘다

- 생산량 증가로 시세가 급락한 **견고추·마늘**에 대해 정부가 ▲**최소시장 접근(MMA) 수입물량**을 **올해 말로 최대한 늦추고 수입물량도 시중에 방출되지 않도록 격리조치**...농식품부에 따르면 안동 산지공판장의 고추 거래가격은 지난 8월 평균 600g당 5,899원으로 2012년과 2011년 같은 기간 1만2,190원, 1만2,070원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 고추 작황이 좋다보니 초기 생산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 이에 따라 농식품부, 8.30일, 수급조절위원회, 2013년산 고추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견고추 5,800톤 수매 비축**, 이미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1만2,000톤으로 확대한 상태. **마늘**의 경우 정부 수매비축 이후 가격하락세가 진정된 것으로 진단, **MMA 수입을 올 연말로 늦추는** 한편 **수입물량 일부는 건조마늘 도입**. ▲**정부 수매 비축**은 **추석 성수기 이후에 시행**...추석 성수기까지 국산고추에 대한 일반 수요가 충분하고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정부 수매 시

산지수집상의 구매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 ▲배추 경락가격이 한 망(3포기)당 1만5,000원 이상 형성될 경우 가락시장 상장매매를 정가 수의매매로 전환한다는 방침

※ 농경연, 농업관측(7.20일 기준) 결과 추정 견고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5% 많을 것으로 전망(생산량은 10만9,000톤에서 11만2,000톤 추정). 여기에서 견고추 산지수집상들이 2011~2012년산 견고추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 산지시세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9.2.) / 농민신문(2013.9.4.)

□ aT, 농산물 사이버 직거래 활성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부 국정과제 및 정부부처 추진과제*와 관련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사업 활성화**를 통해 **복잡한 농식품 유통 구조, 식품 안전 불감증 등 기존 유통관행 개선**. ▲유통구조 개선... **사이버거래소 거래규모 확대**해 **유통단계 축소·값안정** 등 기대, ('12년) 1조 1,146억 원 → ('13년) 1조 3,000억 원 → **(20년) 5조 원**(농림수산업 총 생산액의 10%), ▲학교 급식 식품안전 강화...전국 5,000여 학교가 이용 중인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조달시스템' 안전성 강화**해 부정·중복 입찰 방지,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해 식품위생도 확보, '14.2월까지 '식재료 모바일 사후관리시스템' 구축해 학교가 공급받은 식재료를 현장에서 바로 검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소공상인 활력 회복...**인프라를 활용**한 농식품 산지 직구매 추진으로 **골목 슈퍼와 식당의 구매원가 절감**, 인터넷 보급률이 저조한 영세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 사용 중인 POS단말기에 간단한 터치만으로 판매 상품 주문·구매할 수 있도록 **POS Mall 구축 추진** 중

※ 사이버거래소와 관련된 정부 국정과제...△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농산물 유통 개선, △식품안전, △소상공인 활력 회복

자료 : 농민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3.9.2.) / 한국농업신문(2013.9.3.) / 원예산업신문(2013.9.4.)

□ 국내 비료원료 수입의존도 심화

- 한국무역통계, **비료 수입량 매년 증가***. ('06년) 5만2,914톤(2,704만 달러) → ('12년) 21만1,425톤(9,173만 달러), **3배 가량 증가**. ▲국가별...중국

(‘07년) 71.3%(9만387톤, 3,108만 달러) → 연도별 비료수입량 (단위 : 천달러, kg)
 (‘09년) 56.5%(5만7,886톤, 2,242만 달러)
 → (‘11년) 34.8%(6만1,464톤, 2,754만 달러)
 점유. 특히 **베트남**은 (‘08년) 2만2,040톤(134만 달러) → (‘11년) 3만9,935톤(950만 달러) → (‘12년) 9만9,665톤(3,609만 달러)으로 **전체 수입비중 47.1%** 차지하며 **1위****. 올해도 7월까지 베트남이 7만2,626톤(2,590만 달러)

연도별 비료수입량 (단위 : 천달러, kg)

구 분	금 액	물 량
2013년 7월	62,383	135,595,057
2012년	91,729	211,424,764
2011년	67,485	176,654,401
2010년	54,459	128,515,379
2009년	43,382	102,461,711
2008년	73,733	137,110,831
2007년	49,801	126,795,379
2006년	27,035	52,913,780

으로 53.6%, 중국은 2만4,686톤(1,145만 달러) 18.2%. 이는 복합비료 원료인 DAP를 베트남에서 대량 수입한데 따른 것으로 베트남 수입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

※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 가운데 2가지나 3가지를 포함하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HSK-3105) 수입

※※ 비료수입은 중국이 국내 농업육성을 위한 비료 수출세 등을 부과하면서 베트남과 대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9.5.)

□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연계될 듯

○ ‘농기계도 빌려쓰는 시대’를 연 두 축인 **농기계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을 **연계시키는 방안 가시화** 전망.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작업기 위주의 **임대사업-농업기술센터, 벼농사용 농작업 대행-농협**이 각각 담당하면서 **농업인들의 이용불편 최소화**. 농식품부, **내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한 뒤 전국 농기센터와 농협이 보유한 농기계와 임대현황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실시간 제공, 농기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콜센터 설치, 농협의 농작업대행 안내하면서 현장신청도 가능하게 할 계획

※ 농경연, 지난해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운영기관 일원화 방안’ 운영보고서, △현행 이원화 체제 유지, △농업기술센터(1순위)나 농협(정부지원 필요)으로의 강제 통합, △각 지역 내 양 기관 최고책임자 상호협의에 따른 자율적 통합, △기존체제와 다른 농업기술센터 내 별도조직 분리·운영, 지역농협 간 공동 출자를 통한 조직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

자료 : 농민신문(2013.9.4.)

□ 농지이용 실태조사

○ 농식품부, **9.1일~11.29일까지** 무단휴경농지나 불법임대, 무단전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처분 의무’ 부과하거나 ‘무단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도 병행. 또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맞게 농지원부도 함께 정비. 특히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주로 **취득 후 8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대상**, 해당 농지 소재지가 아닌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집중 점검**

※ 지자체가 관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9.1일~11.29일까지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투지목적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등 특별한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수시조사로 구분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9.5.)

□ 축산물 유통대책 철저관리

○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유통문제 해결에 박차. 8.30일, ‘축산물 유통포럼’ 열고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정례화. ▲주요내용…축산농가-조합 간 계열화 체제 확립, 도축·가공·판매를 일관 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유통단계 축소해 나감으로써 안심축산 시장점유율을 오는 2016년까지 소 37.1%, 돼지 25%로 확대, 등심(소)·삼겹살(돼지) 등 특정부위에 편중되어 있는 축산물 소비구조 개선 위해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 분할·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하는 등 식육가공산업 육성. 이에 맞춰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교육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하는 한편,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등 식육가공 분야 R&D 연구 확대 추진키로. 또한 **소비자단체가 소비지 유통실태 정기적 조사·공표방안 추진 중**

※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형 소매 판매점 확대, 식육 부위별 수급 및 가격 불균형 해소 등

자료 : 축산신문(2013.9.2.) / 농수축산신문(2013.9.5.)

□ 자연재해에 농가 '의무복구시한' 폐지

- 정부, 9.3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이 정부로부터 복구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복구시한 규정 폐지** 한다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심의·의결**. (현행) 자연재해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복구 전에 미리 대파대·농약비·시설하우스 재설치비 등 복구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0일 이내 복구.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지 않는 것은 농사를 포기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30일 이후에 복구에 나서려는 농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이 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자료 : 농민신문(2013.9.6.)

□ 농업,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 농협, 8.29일, 농촌인력증개센터* 개소식, 전국 158곳에 운영 중인 **농촌 인력증개센터에 농촌인력 지원 강화. 농업인 부족한 일손 해결, 도시 유흥인력엔 일자리 제공, 소개비 없애고 상해보험가입 혜택**, 또한 학생·기업체 임직원들의 농촌자원봉사활동 및 사회봉사명령자의 일손돕기 지원 등 **시·군 단위 농촌 인력 지원**. 앞으로 **3년 이내에 연간 100만 명 인력을 농촌 현장에 투입**할 계획

※ 도시 유흥 인력을 활용, 고령화 등에 따른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농협이 전국 158개 농협 시·군 농정지원단에 설치한 기구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농축유통신문(2013.9.2.) / 한국농업신문(2013.9.3.)

□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 환경부, 8.28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종 공청회 개최
 - 농식품부 소관인 현행 **'비료관리법'**과 **상충,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사전 조사나 퇴비업체의 의견수렴 거치지 않아 반대 여론** 제기

[무허가축사 폐쇄명령 유예기간 및 과징금 관련]

- **(축산단체)** 무허가축사 폐쇄명령 유예기간 연장, 과징금 하향 조정해야
 - 전국 축산농가의 50%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기존 **2년 → 4년으로 유예기간 연장, 과징금 한도액도 1억 원 →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강조
- **(정부)** 유예기간 1년 정도 추가 연장, 5,000만 원 하향 조정 설계
 - 소규모농가나 한센인 정착촌 내의 시설을 제외한 일반농가의 경우 **유예기간 1년 정도 추가 연장 검토, 과징금은 축종별 사육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산정**하되 농가들의 요구대로 **5,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 부과** 설계

[개정법률안 문제점]

- (개정 법률안 제10조) 기존 가축분뇨 이외에 **퇴비·액비를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비료관리법과 상충. 환경부가 퇴·액비 생산과 유통, 사용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부처 업무를 뛰어넘는다는 지적
 - 제28조의 2를 신설해 **가축분뇨 이외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허용**한 점도 현행 비료관리법과 상충
- (개정 법률안 제24조)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
 - 현재 가축분뇨는 민간업체를 통한 퇴비화나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 등을 통해 처리. 현재 **퇴비업체 가동을 46%대에 머물러 있어 추가시설 없이 업체 가동을 높일 경우 얼마든지 가축분뇨 자원화 가능**
 - ※ △농식품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대책('13.4월)'에 따르면 공동자원화 시설 ('12) 54개 → ('17) 150개, 1개소 100톤 처리규모로 개소 당 40억 원씩 총 6,000억 원 예산 필요. 여기에서 △환경부, (현재) 80개 → ('17) 100개 추가하면 개소 당 최소 3억 원 반영해도 3,000억 원
- (개정 법률안 제2조 10) 현재 가축분뇨를 이용해 퇴비생산을 주도하는 **유기질비료조합이 생산자단체 규정에서 제외**. 생산자단체를 농협·축협 및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 **농·축협이 퇴·액비 생산시설을 지원받아 생산·유통·소비를 장악**함으로써 민간업체는 고사되고 농민의 선택권도 박탈

자료 : 농수축산신문·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3.9.2.) / 한국농업신문(2013.9.3.) / 농민신문·원예산업신문(2013.9.4.)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7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

※ 본 자료는 2013년 8월 22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 13.7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 수입가격 지수 포함」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농산물 수입가격 동향

○ [곡물류] 전월대비 팥·커피(원두)를 제외한 주요 곡물류 수입가격 하락

※ 전년 동월대비 옥수수(팝콘용)·팥·제분용밀 ↑, 옥수수(사료용)·강낭콩·커피원두 ↓

- (팝콘용 옥수수) 전월대비 0.1% ↓, (사료용 옥수수) 전월대비 1.7% ↓
- (팥) 전월대비 1.5% ↑, (강낭콩) 전월대비 2.6% ↓
- (제분용 밀) 전월대비 1.0% ↓, (원두 커피) 전월대비 2.2% ↑

○ [양념채소류] 전월대비 신선양파·신선마늘·냉동마늘을 제외한 주요 양념 채소류 수입가격 상승

※ 전년 동월대비 양파·생강·건조고추 ↑, 냉동고추·신선마늘·냉동마늘 ↓

- (신선양파) 전월대비 16.0% ↓, (냉동양파) 전월대비 0.9% ↑
- (건조고추) 전월대비 9.1% ↑, (냉동고추) 전월대비 4.3% ↑
- (신선마늘) 전월대비 4.1% ↓, (냉동마늘) 전월대비 6.7% ↓
- (생강) 전월대비 1.9% ↑

○ [엽근채소류] 전월대비 무·표고버섯은 상승한 반면, 양배추·당근은 하락

※ 전년 동월대비 무 ↑, 당근·양배추·표고버섯 ↓

- (신선무) 전월대비 3.7% ↑, (표고버섯) 전월대비 0.3% ↑
- (당근) 전월대비 5.6% ↓, (양배추) 전월대비 1.0% ↓

○ [과일류] 전년대비 오렌지·포도는 상승한 반면, 키위·바나나·파인애플은 하락

※ 전년 동월대비 바나나·파인애플 ↑, 키위·오렌지·포도 ↓

- (키위) 전월대비 0.1% ↓, (오렌지) 전월대비 5.6% ↑
- (바나나) 전월대비 5.7% ↓, (포도) 전월대비 34.0% ↑
- (파인애플) 전월대비 1.0% ↓

<주요 농산물 수입가격 동향>

품 목		'13.7월 가격(원/kg)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4월	5월	6월	7월	'12.4월	5월	6월	7월
곡 물 류	옥수수(팝콘용)	1,391	6.8	0.8	5.2	△0.1	41.8	27.1	28.5	31.1
	옥수수(사료용)	361	5.2	0.6	0.9	△1.7	2.7	1.6	△1.8	△0.5
	팥	4,452	40.4	△24.6	169.7	1.5	20.7	13.8	151.3	202.2
	강낭콩	849	△3.8	△4.4	18.4	△2.6	17.1	△13.3	14.0	△2.0
	제분용밀	440	0.5	△1.5	△0.9	△1.0	16.7	17.8	6.7	9.6
	커피(원두)	18,989	△13.7	△3.7	△4.4	2.2	△5.9	△10.4	△20.3	△12.3
양 념 채 소 류	신선양파	831	1.1	△10.5	0.1	△16.0	101.8	30.5	115.8	59.3
	냉동양파	788	1.2	6.3	△1.8	0.9	2.8	6.1	△4.3	4.7
	생강	2,614	21.2	9.8	14.4	1.9	1.2	△13.3	69.0	58.1
	건조고추	7,974	△27.6	13.8	△1.4	9.1	△27.9	△8.1	45.4	11.9
	냉동고추	880	2.6	△0.8	1.1	4.3	△5.9	△8.8	△10.5	△3.7
	신선마늘	2,196	△27.5	7.3	28.9	△4.1	9.4	1.4	△0.2	△6.7
엽 근 채 소 류	냉동마늘	1,051	4.1	△12.3	△5.5	△6.7	33.5	10.8	△4.1	△21.3
	신선무	345	6.4	△17.7	0.7	3.7	41.9	15.0	5.2	25.5
	표고버섯	5,601	4.2	△0.7	1.1	0.3	5.8	△0.3	△4.2	△1.2
	당근	791	△10.3	△2.5	15.9	△5.6	15.7	3.5	△18.8	△8.1
	양배추	407	3.7	42.9	△40.0	△1.0	△3.6	△1.2	△32.8	△39.5
	과 일 류	키위	3,674	△12.6	△6.7	37.9	△0.1	48.6	△27.6	△9.7
오렌지		1,888	5.6	1.8	△3.1	5.6	△6.2	△7.1	△3.8	△0.7
바나나		1,284	19.4	3.7	△2.6	△5.7	8.4	12.1	20.6	27.1
포도		4,525	△7.8	△3.9	△0.9	34.0	20.6	11.9	△18.0	△12.0
파인애플		1,171	15.3	0.9	△2.7	△1.0	3.4	2.7	△1.2	10.3

□ 축산물 수입가격 동향

○ [소고기] 전월대비 0.7% 하락(전년 동월대비 6.0% 상승)

- (냉장 소갈비) 9,673원/kg(전월대비 0.1% ↓, 전년 동월대비 25.0% ↑)
- (냉동 소갈비) 7,019원/kg(전월대비 1.0% ↑, 전년 동월대비 9.7% ↑)

○ [돼지고기] 전월대비 1.5% 상승(전년 동월대비 1.3% 하락)

- (냉동 삼겹살) 5,336원/kg(전월대비 0.5% ↓, 전년 동월대비 5.4% ↓)
- (냉동 기타부위) 2,846원/kg(전월대비 4.8% ↓, 전년 동월대비 8.6% ↓)

○ [닭고기] 전월대비 2.8% 상승(전년 동월대비 1.4% 하락)

- (냉동 닭다리) 2,881원/kg(전월대비 2.9% ↑, 전년 동월대비 0.3% ↓)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